

국가AI전략위,

「에이전틱 AI 시대 국가 AI 컴퓨팅 전략」 세미나 개최

- 에이전틱 AI 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 생태계 구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기반 차세대 AI 전략 논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7월 20일(월) 서울스퀘어 16층 회의실에서 「에이전틱 AI 시대, 국가 AI 컴퓨팅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인공지능은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기능을 연계해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로 발전하고 있다.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에이전틱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AI 서비스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컴퓨팅 인프라의 효율성과 운영 체계가 국가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인 ①AI 반도체, ②AI 로봇 등 퍼지컬 AI, ③AI 데이터센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AI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AI 서비스에 필요한 국가 AI 컴퓨팅 전략을 논의하고, 메가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 기술혁신·인프라 분과(분과위원장 카이스트 김재철 AI대학원 교수 신진우)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에이전틱 AI 시대, 국가 AI 컴퓨팅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동수 기술혁신·인프라 분과 위원(a2sys 대표)은 에이전틱 AI 확산에 따른 컴퓨팅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AI 데이터센터의 연산·메모리 자원 최적화, ▲다수의 AI 에이전트가 협력하는 운영 구조,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발전 방향, ▲AI 서비스 비용과 처리시간을 줄이기 위한 기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발표와 심층 토론이 진행되었다.

분과 위원들은 향후 AI 경쟁력은 GPU 확보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AI 반도체, 메모리,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운영 체계를 통합하고 서비스 특성에 맞게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 경쟁력이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AI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가 퍼지컬 AI 확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상호 연계된 하나의 AI 생태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신진우 기술혁신·인프라 분과위원장은 "AI 경쟁의 중심이 우수한 모델 개발에서 AI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기반과 시스템 경쟁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 AI 컴퓨팅 전략을 선제적으로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가 국가 컴퓨팅 수요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AI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견인할 중장기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끝.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인프라지원팀	책임자	팀 장	민자영 (02-2224-4181)
		담당자	사무관	손희경 (02-2224-4182)
			전문관	이정옥 (02-2224-4187)
			전문관	박성준 (02-2224-4184)